

2023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The Great Divide II 시대 기업 대응 전략

Executive Summary (1/3)

The Great Divide II 시대의 도래

- The Great Divide II 시대는 팬데믹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지정학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 블록으로 양분되는 신냉전 시대를 의미
- 향후 5년 내 글로벌 경제는 4개의 미래 시나리오 중에 ‘Cold War II (신냉전)’ 시나리오의 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EY 글로벌 Geostrategy 팀이 제시한 미래 시나리오: Globalization, Friends First, Cold War II, Self-Reliance)
- 신냉전 시대의 메가트렌드는 총 6가지이며, 이는 향후 비즈니스 관점에서 3가지 영향 (Business Impact)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메가트렌드:
 - (1) 진영 간 지정학적 갈등
 - (2) 정부의 공급망 개입 증가
 - (3) 친환경 정책의 무역 장벽화
 - (4) 자원의 무기화
 - (5) 기술 보호주의 강화
 - (6)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Executive Summary (2/3)

The Great Divide II 시대의 3대 비즈니스 임팩트

(1) 해외 사업 리스크 증대에 따른 경영 악화 가능성: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기존 제품, 마케팅, 공급망 등의 해외 전략 재수립 필요

- [반도체/전기차 기업] 글로벌 첨단 산업 기업들은 우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하면서 해당국가의 정책적 수혜를 극대화
- [전자기기/의류 기업] 생산 안정성 또는 수요 시장 인접성을 고려한 생산 기지 다변화를 통해 현지 리스크를 회피

(2) 저비용 고효율화 사업구조 재편 니즈: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리스크 가중에 따른 사업 모델 고도화 및 비용 절감 중요성 증대

- [생활용품/스포츠웨어/가구 기업] D2C 사업모델을 확대하여 채널/마케팅 비용 절감 및 데이터/브랜드 관리 역량 강화
- [전자기기 기업] 제조/판매 방식에서 구독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고효율화 전환 추진
- [금융 기업] 장기적 관점의 전사 비용 구조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자산 효율화, 자동화 시스템 개발, 비핵심 사업 재편 등 시행

(3) 친환경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전세계 친환경 정책/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사 역량을 친환경에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자동차 기업] 공급사-자사-소비자까지 아우르는 전 밸류체인의 저탄소 Transition 추진
- [포장재 기업] 친환경 원료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Executive Summary (3/3)

The Great Divide II 시대, 기업 대응 전략

해외사업 리스크 증대에 따른 1) 글로벌 사업 재편, 3고 리스크 하에서의 2) 비용/재무 구조 최적화, 자사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고객까지 포괄하는 3) End-to-End Green Transformation 전략 추진 필요

- (1) **글로벌 사업 재편**: 선도 기업들은 ① 비효율 해외사업 매각/철수, ② 해외사업 비즈니스 모델 재편, ③ 수혜지역 사업 강화, ④ 공급망/생산기지 이전의 네 가지 방식으로 실행
 - [패션 기업] 중국에서의 사업 모델을 리스크가 적은 프랜차이즈 모델로 재편하고, 생산기지도 중남미로 이전
 - [배터리 부품 기업] IRA 수혜를 얻고자, 미국 주별 인센티브 분석 등을 통해 미국 내 최적 생산기지 입지 선정
- (2) **비용/재무 구조 최적화**: ① 비효율 자산 축소, ② 운영 효율화, ③ 사업 영역 변경, ④ 재무 구조 개선의 4대 전략 추진
 - [F&B 기업] 보틀링 시설을 매각하고 핵심 원료 공급에 집중하는 고수익 사업모델로 변경
 - [화학 기업]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두 화학업체를 합병 후 사업부 별로 분사하고, 사업부별 중복 자산 매각/ 정리
 - [석유화학 기업] 원유 가격 변동성 심화, 감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사 원가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실행
- (3) **End-to-End Green Transformation**: 전 밸류체인에서의 친환경 수준에 대한 ① 측정, ② 감축, ③ 커뮤니케이션 3단계 접근 필요
 - [유통 기업] 자사 물류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친환경 활동 지원 및 소비자의 친환경 패키지 사용 도모
 - [F&B 기업] 인공위성/AI를 활용해 원료 공급 과정에서의 협력사 산림파괴 모니터링, 친환경 패키지 개발 및 홍보
 - [해운 기업] 전 Value Chain 탄소 배출량 측정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Net Zero 이행 로드맵 추진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exists to build a better working world, helping to create long-term value for clients, people and society and build trust in the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nd technology, diverse EY teams in over 150 countries provide trust through assurance and help clients grow, transform and operate.

Working across assurance, consulting, law, strategy, tax and transactions, EY teams ask better questions to find new answers for the complex issues facing our world today.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3 Ernst & Young Han Young
© 2023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0974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카톡에서 EY한영 채널 추가하세요 

EY한영 소셜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KakaoTalk](#) [LinkedIn](#) [Instagram](#) [Facebook](#) [YouTube](#)